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이소훈***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2021년 2월 16일, 대구시 북구청은 주민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삼아 다룸이만경복앤드이슬라믹센터(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근 1년여 간 공사장 앞을 순번제로 지키고, 집회를 진행하며 현수막, 팸탈, 유인물 등의 게시물을 제작하여 곳곳에 게시하고 유포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례에서 적극적인 인종차별 행위의 주체로 국가나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일반 주민 집단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2021년 2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반대 주민 집단의 게시물에서 추출한 문구 총 93건을 분석했다. 이 자료들은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흔히 볼 수 있는 '탄원의 정치'를 닮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를 여타 유사한 현상들과 묶어 넘비 등으로 손쉽게 뭉뚱그리는 것을 지양하고 '인종주의의 위장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종주의가 어떻게 이미 존재하는 사회갈등의 외형을 띠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어법들을 활용하여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또한 이슬람혐오 및 인종주의가 다중스케일적으로 발현된다는 관점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내셔널, 로컬 스케일의 역동을 살핀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슬람혐오가 단순히 '서구에서 수입된'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한 배제적 권리담론이 결합하면서 재발명되며, 지역적 맥락에 따라 발현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제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이슬람혐오, 인종주의의 위장술, 사회 갈등, 역사별

I. 들어가며

2021년 이슬람 관련 뉴스를 분석해 보면, 탈레반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관련 뉴스를 제외하고는 '대구', '주민들', '북구청' 등이 주요한 연관 키워드로 나타난다.¹ 한국의 여론 지형에서 이슬람이 대체로 국제 테러, 난민 뉴스의 일부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다영이 자료조사에 도움을 주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¹ 빅카인즈(bigkinds.or.kr)에 검색어 '이슬람'을 넣어, 2021년 1월 30일~2022년 1월 30일, 1년간 중앙지와 방송사(KBS, MBC, OBS, SBS, YTN)의 뉴스를 검색, 분석하였음.

로만 다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좀처럼 그 연관성을 상상하기 어려운 ‘대구’와 ‘이슬람’이 만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만남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최근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은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오랜 기간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건축이 시작되었다. 사원 측은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들의 수는 15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자체 추산 통계 외에 공식적으로 무슬림 유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² 2021년 경북대학교 외국인 학생 국적별 자료³로 이를 추정해 보면,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인 파키스탄(96명), 우즈베키스탄(69명), 방글라데시(39명), 인도네시아(14명), 카자흐스탄(12명)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슬람교 신자인 나이지리아(46명), 통상 인구의 15% 정도가 무슬림인 인도(57명) 등에서 이입되는 유학생 수만 살펴보더라도, 학부생 및 교환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무슬림 학생 수는 경북대학교 무슬림 대학원생들이 추산하고 있는 150여 명을 상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국적별 유학생 수 통계 추이에 따르면, 위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그 수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슬림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 혹은 지역사회에서 무슬림의 종교적 실천이나 한국 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부재했다. 이런 가운데 역설적으로 이들의 종교적 실천 행위를 가로막는 사건이 한국 사회에 무슬림 학생들의 존재를 알렸다. 아래는 2021년 2월,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북구청장에 제출한 탄원서이다.

탄원서

2021년 2월 15일. 북구청장님께

대현 1동 1통 소재 이슬람사원 건축을 취소해주실 것을 엄중히 건의합니다.

² 경북대학교 유학생들의 종교를 파악하는 공식 통계 자료는 부재함.

³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 제공 통계자료. 학위 및 비학위과정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함.

1. 이슬람 사원 신축시 반경 1.5km의 주거밀집지역의 안전보장이 불확실합니다.
주야막론 -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만요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과 확실한 대안책을 내어주시십시오.
2.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의 생명보장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인들의 횡포가 예상&우려됩니다. 이로 인한 북구 대현동 주민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어주시시오.
3. 이슬람사원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슬럼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요구
4. 주민들의 정서불안과 동네의 피폐화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청와대-탄원서 및 국민청원을 넣겠습니다. 북구청당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6. 북부주차장도로 맞은편 원대동-외국인 집단거주로 인한 슬럼화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박탈을 재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7. 대현 1동을 외국인(이슬람인들)의 거점지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 하였습니다. - 이슬람문화권이 조성된 대한민국 여타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생명보장권, 행복추구권”, “이슬람인들의 횡포”, “슬럼화”, “정서불안”, “피폐화”, “외국인(이슬람인들)의 거점지역”, “이슬람문화권” 등의 표현은 이후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슬람혐오(Islamophobia)의 양상을 잘 보여 준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이나 기존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인종차별, 노동권 관련 분쟁 등과는 달리 소속대학 근처에서 주거하는 ‘외국인 주민’인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주거하는 ‘한국인 주민’ 간에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인종차별 가해자로 주목받은 행위자는 주로 국가기관이거나 특정 개인이었는데 반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논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

차별행위의 주체로 ‘선주민 집단’이 등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월 16일, 대구시 북구청은 위 탄원서를 근거 삼아 당시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 건축되고 있었던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무기한 중단시켰다. 북구청은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건축 중지 사유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를 공문에 적시하며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승인했다. 또한 북구청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을 한국인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⁴ 실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내준 주체가 북구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회피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유지도 저버린 이런 모습은 ‘다문화정책’을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낸다.⁵ 북구청의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는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인종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실천과 비실천 안에서 제도적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정책 및 담론 분석이나(오경석 외, 2007; 정혜실, 2010; 육주원, 2016) 이민자 수용, 관리 정책 등에 대한 선행연구(이병렬·김희자, 2011)들이 제도적 인종주의의 작동 방식을 살펴온 반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 이주민 집단에 대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제와 구분, 차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웃 집단 간 갈등의 기저에 인종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종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대현동 무슬림 커뮤니티의 사례가 작업장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이나 개별화되어 한국 가족에 소속되는 결혼이주자들과

⁴ “이슬람 사원 논란은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사안.” 한국일보 21/07/07(<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618000001445>)(검색일: 2022. 1. 18.).

⁵ 현재 대구 북구청장(배광식)은 2017년 2월 다문화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정책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기관을 선발하는 제4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참조: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383>).

는 달리 자신들의 종교 실천 행위를 통해 일상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이주자 집단을 형성하며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례라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인종주의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단순하게 국가의 억압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를 상징하고 일상에서의 인종주의적 관행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역으로 인종주의 자체를 개인의 병리화적인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관점 모두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대현동에 대한 사례 연구의 목적은 주민 집단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가 특정 지역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고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을 글로벌, 내셔널, 로컬이 뒤얽히고 충돌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그 역동을 살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에세드(Philomena Essed)가 말한 “일상적 인종주의(everyday racism)” (Essed, 1991)에 착안하여 ‘인종주의의 위장술(racism in disguise)’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에세드에 따르면, 일상적 인종주의는 “인종주의적 통념들이 일종의 관행이 되고, 인종주의적 함의를 담은 이러한 관행들이 반복되어 익숙해지며,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인종적·종족적 관계들이 이러한 일상 속 익숙한 관행들에 의해 실물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이다(Essed, 1991: 53). 공사가 중지되고 간헐적으로 집회가 계속되며 사원건축반대 현수막과 팻말이 지역 곳곳에 1년여 간 걸려 있는 풍경을 에세드가 말한 “일상적 관행”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의 실행행사와 특정 시설 및 대상을 기피, 반대하는 현상들은 한국 사회에서 꽤나 익숙한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종주의의 위장술’⁶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렇듯 인종주의가 이미 존재하는 사회갈등의 외형을 띠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어법들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동학

⁶ 여기서 ‘위장’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 가해자의 어떤 ‘의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인종주의의 위장술은 인종주의 자체가 사회의 여타 모순들과 부딪히고 얽히는 과정 속에서 특정 사회현상이자 문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의 인종주의의 작동을 알아채기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짚고자 하는 개념이다.

을 짚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외부단체들이 사용한 현수막, 팻말, 유인물 등의 문구를 분석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표면적으로는 주거지와 인접한 신규 건설현장이나 개발 사업 등을 둘러싸고 흔히 볼 수 있는 ‘탄원의 정치’의 양상을 띤다. 특히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을 공사장 근처 및 구청과 법원 앞 등에 게시하는 형식은 분진,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물 및 기타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민 집단행동과 유사하다. 이 점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갈등일 뿐이라는 손쉬운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접근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특정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유사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의 배경에 저마다 특수한 사회적 권력관계가 배치되어 있음을 놓치고, 이 모든 갈등을 ‘넘비’와 같은 말로 뭉뚱그려 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과 같이, 현수막, 팻말 등에 나타난 문구들을 분류하고, 연결시키며,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종주의가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며, 건축 및 개발 관련 지역갈등과 교차,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II. 연구 방법 및 배경

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필자들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관련 사안에 깊숙이 관계해 왔으며, 이슬람사원 측과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슬람사원 갈등 초기에는 반대 주민들과 접촉하여 설득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수차례 경주하였고, 이후 현수막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으며, 대학 및 정부 각 기관 책임 촉구, 무슬림 학생 및 그 가족들과 한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현수막, 팻말 등을 수집하는 작업 역시 필자들의 현장 연구 과정의 일부였으며, 현수막 등 텍스트 분석 작업에 있어서도 지난 일 년여 간 필자들의 참여관찰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자료를 뒤섞기보다는 현수막과 팻말 문구 분석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참여관찰 경험을 활용한다. 필자들의 현장 연구 경험에 따르면, 해당 문구들은 평소 주민들의 사원반대 논거 및 주장뿐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관찰되는 구별짓기, 분노 등의 정동을 잘 담고 있는 자료다. 또한 현수막, 팻말 등은 단순히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시각적 재현물로 기능하며 무슬림 유학생들이 세 들어 사는 집 앞 창문에서부터 학교 가는 길, 장 보러 가는 길 등 일상적 생활공간 전반을 이슬람혐오의 정동으로 재구성해 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분석의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문구들은 2021년 2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원 및 대현동 일대와 사원건축 반대 집회 현장, 경북대학교 북문 앞, 북구청, 대구시청, 대구지방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 등에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 팻말 혹은 배포된 유인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총 93건에 달한다. 현수막 문구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직접 관찰, 수집하였고 누락된 것들은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 보완한 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 및 분류하였다. 매체의 형태에 따라 문구의 길이에는 차이가 있다.

2. 사원 건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다를이만경북앤드이슬라믹센터(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역사는 2012년 경북대학교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서문 근처 공간을 임대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2014년에 유학생들은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근처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동지를 틀고, 같은 해 12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1960~1980년대에는 시내버스가 서문을 통해 출입하고 식당가와 오락실 등이 성행하는 등 서문 인근 지역이 매우 번화했다. 하지만 서문 차량통행이 막히고

학생들의 동아리문화가 쇠퇴하면서 상권도 사그라들었고, 근처에 위치한 단과 대학이 없어 원룸촌으로서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선호도는 낮지만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알려지며 금전적인 제약이 있는 유학생들이 유입되었다. 올해 들어 대구엑스코선 개통, LH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의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다.⁷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이 지원하는 활동은 매일기도, 꾸란 읽기, 라마단절기 행사이다. 경북대 유학생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슬람사원을 이용하는 신도의 수도 많아졌다. 매일 다섯 번 기도를 드리는 신도는 7~20명에 불과할지라도 팬데믹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50명 정도의 신도가 모여 꾸란 읽기와 단체 식사를 했고 매년 4주간의 라마단 기간에는 주말마다 70~100명의 학생이 모여 명절을 함께 보냈다. 즉 경북대 무슬림 학생 중 많은 수가 해당 이슬람사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은 이 학생들에게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구입하여 사원 공간으로 사용하던 주택건물은 낡고 비좁아서 다수가 모일 때엔 마당에서 꾸란 읽기와 기도 및 식사를 해야 했고, 이 역시 계절의 제약을 받아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 일찍부터 새 건물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미뤄졌고 이에 사원 구성원들은 여러 해 모금 활동을 벌여 2020년 마침내 건축비용을 모으기에 이른다. 사원 측은 2020년 9월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논란은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불거졌다. 인근 주민들은 사원 측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자신들을 속였기에 이슬람사원이 건축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2월 16일, 대현동과 산격동에 거주하는 수백 명 주민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북구청에 제출되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북구청은 애초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가 이슬람사원이 여러 해 별 민원 없이 같은 장소에서

⁷ “경북대 서문? 복현 오거리? ... 대구 엑스코선 역 위치 ‘썰전’”(매일신문 20/12/30). <http://news.imaeil.com/page/view/2020123015152315762>(검색일: 2022. 3. 31.).

“LH,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추진”(프레스리안 21/07/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515442654289>(검색일: 2022. 3. 31.).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주민들의 탄원서를 접수한 당일 즉시 건축업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선의로 음식 냄새와 소음 등을 “참아 왔다”고 토로하며, 과거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북구청의 설명에 크게 반발했다.

이슬람사원 측은 해당 공간이 이미 여러 해 예배공간으로 사용했던 장소이고 건축 시작 전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했다면서 주민들의 “거짓말”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음식 냄새와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굴뚝과 소음벽을 건축하여 이웃 주민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1년 3월과 6월에 북구청 주재로 중재회의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주민들의 반대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2021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6일 법원은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2021. 12. 1. 선고 2021구합22687).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슬람에 대한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제기를 근거로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021. 9. 2. 결정 21진정0426300). 하지만 앞서 7월에 동일한 재판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으로는 이미 공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물리적 방해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I. 이슬람혐오와 인종주의의 위장술

자메이카 출신 홀(Stuart Hall)은 영국에 이주해서야 자신의 “흑인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인종이 “서술이며 이야기이며 역사(a narrative, a story, a history)”라고 말한다(Hall, 1987: 45). 인종은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구성되고, 이야기되고, 전해진 것(something constructed, told, spoken and not simply found)”(ibid.)이라는 그의 주장은 인종이 사회제도, 구조, 역사에 의해 창조되고, 경험되며, 변

형되고 파괴된다는 Omi and Winant(2014)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9·11 사태 이후 이슬람혐오가 현대 사회 인종주의적 표현의 주요한 가닥으로 자리 잡았지만(Poynting and Mason, 2006; Werbner, 2013; Carr and Haynes, 2015)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이 동질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다. 그 이유로는 물론 한국 사회가 백-황-흑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삼색 구성으로 인종을 생각하는 데 익숙한 탓도 있겠지만,⁸ 이슬람과 인종의 독특한 역동 탓도 있다. 학계에는 이슬람을 ‘인종’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이슬람혐오의 성격을 인종주의로 볼 것인지 종족주의 혹은 종족중심주의로 볼 것인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Carr and Haynes, 2015).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서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특정 입장의 타당성을 논증하기보다는 반이슬람(anti-Islam)의 논리와 정동 가운데 무슬림이 어떻게 인종화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슬람혐오는 유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가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세계와 수많은 전쟁과 식민주의 등으로 엮인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세시대 아랍과 오토만제국의 유럽침공과 서유럽 기독교 비잔틴 제국이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지역을 지배한 이슬람제국으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고자 했던 십자군전쟁에서부터 19세기와 20세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대한 서구의 식민지배가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슬람혐오의 초석이 되었다. 이슬람혐오(Islamophobia)라는 표현은 “이슬람을 향한 근거 없는 적대감”을 뜻하며 1997년 영국의 인종 불평등 문제와 문화다양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러니미드트러스트(Runnymede Trust)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unnymede Trust, 1997: 4; Najib and Hopkins, 2020: 449에서 재인용). 이슬람혐오는 1990년대 1차 걸프전 등 헌팅턴(Huntington, 1993)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한 이슬람-서구세계 간의 분쟁 속에서 심화되다가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미국의 부시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이슬람 자살폭발 테러가 연이어 일어나고 IS(Islamic State)의 폭

⁸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클레어 진 김은 미국 사회가 백인종과 흑인종 사이에 아시아 인종을 넣어 “삼각구도(triangulation)”의 방식으로 인종적 관계를 편성한다고 말했다(C. J. Kim, 1999).

력적인 모습이 2010년대 중반부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서구 세계에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이슬람혐오는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무슬림 남성을 이슬람의 전형(archetype)으로 상정한다. Said(1979)는 아랍세계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것이 유럽열강의 식민 지배를 위해 필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아랍인은 기독교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인 데다가 게으르고 의심이 많아서 앵글로색슨족의 명확하고 솔직하며 고귀한 성질에 반대되며(Said, 1979: 39) ‘이단 종교’인 이슬람을 신봉하며 거칠고 미개한 습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아랍세계의 열등함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이며 유럽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즉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전형은 필연적으로 반(反)서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처럼 ‘서구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은 이슬람혐오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의 이슬람혐오 역사와 맥락은 한국인들에게 낯선 이야기이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이슬람 세계는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현대 와서도 국내 무슬림 인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이주민 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한국인 이슬람 개종자는 더욱 적다.⁹ 나아가 국내에서 이슬람 관련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고 소수의 무슬림 이주민이나 이슬람 개종자 또한 별다른 사회문제와 연루된 적도 없다. 오히려 이슬람권은 1970~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의 바람으로 건설노동자 등을 파견하여 ‘오일달러’를 벌여 온, 어찌 보면 한국의 경제발전사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논란 이후 급격히 퍼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분석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다. 구기연(2018: 412)이 관찰하듯 이러한 현상은 “무슬림 없는 이슬람포비아”, “난민 없는 난민포비아”에 가까우며, 자국 역사와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타 지역, 타국의 경험을 매개한 간접적인 것이다.

한편 이슬람혐오는 유럽에서 건너왔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고유한

⁹ 이슬람교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선택 가능한 종교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의거해 신도 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는 2018년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무슬림 인구를 약 15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3~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전정윤, 2018).

모습으로 재창조, 재발명된다. 예를 들어 Werbner(2013)는 서구 사회가 무슬림을 대심문관(Grand Inquisitor)의 모습으로 전형화한다고 관찰했다. 무슬림은 무례하며, 도덕적인 우월감에 차 있으면서도 대놓고 공격적이며, 서구와 같이 난잡한 사회를 반대하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상상되는데, 이는 소위 이성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서구 지식인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에서 상상되는 이슬람은 서구에서처럼 자아와 명확히 대별되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음습하고 기분 나쁘며, 바이러스 같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이슬람혐오를 야기하는 배경, 즉 언어적·사회적·정치적 구성요건과 그 독특한 특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슬람혐오를 포함하는 현대의 인종주의는 종종 ‘신인종주의’,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인종주의자 없는 인종주의’ 등으로 불린다(Barker, 1981; Balibar, 1991; Bonilla-Silva, 2003). 이러한 개념들은 과거 소위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명시적인 인종적 위계화와 직접적인 차별과 대별되어, ‘문화적 차이’를 인구 집단을 분류하는 주요한 차이로 인지하는 속에서 더 교묘하고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대 인종주의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다(Yuk, 2016: 142). 실제로 무슬림은 다양한 인종적 집단을 포괄하는 종교적·문화적 지표로서 피부색 등의 생물학적 차이를 위계화하는 인종주의와 구별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은 진정한 의미의 인종차별 같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문화적 차이에 의거한 공존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일 뿐이라는 신인종주의적 주장을 낳기도 한다. 이 논문의 ‘인종주의의 위장술’ 개념 역시 이러한 포괄적 맥락을 공유하는 가운데 고안된 개념이다. 그러나 신인종주의를 비롯한 유사 개념들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구인종주의와의 차별성 속에서 개념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의 인종주의의 작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 우생학 등 서구 제국주의의 인종화된 담론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이식되었던 인종주의적 틀이 문제화되거나 역사적 인종주의에 대한 대중적 담론화가 이루어진 경험이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현대 인종주의는 생물학적·문화적·

종교적·계층적 요소들이 모두 절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종주의가 단지 ‘문화적’ 차이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아닌 것’으로 주장된다기보다 한국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관행과 실천을 통해 ‘인종주의가 아닌 것’으로 위장된다는 것이다. 즉 기저의 인종주의의 작동을 지우는 인종주의 ‘지역화된 동학’을 주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종주의의 위장술’ 개념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종주의의 위장술 개념을 통해 이슬람혐오가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핌으로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변화한 21세기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해 사고한다. Essed(1991)는 일상적인 인종주의를 말하기에 앞서 인종주의란 집단적 권력의 실현을 의미함으로 “제도적 인종주의”와 대립되는 “개인적 인종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행동이나 관행이라도 인종주의는 제도 및 구조라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종주의는 거시적인 스케일의 구조적·문화적 불평등이 미시적인 스케일의 일상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발견되는 인종주의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역사적인 과정, 위계적 사회적 관계가 일상생활에 관행 등으로 녹아든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Billig(2001)은 KKK가 온라인 유머 웹페이지를 통해 인종주의를 유포시키는 방식을 연구하며 인종주의 유머는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머라는 형식이 인종주의를 존치시키는 핑계가 되고, 인종주의를 일상적으로 유포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Li(2019)는 호주 백인 고용주가 중국계 고용인에게 가하는 미묘한 인종적 공격(racial microaggressions)을 분석하며, 이는 고용관계와 인종관계의 이중적 위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종주의의 경험은 아무리 일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제도적·구조적 권력 관계가 투영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이다.

한국의 이슬람혐오의 구성을 살피는 일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흥미롭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와 그 나머지”(Velayutham, 2017: 415)를 상정하는 반면, 이 논문은 ‘유색인종에 의해 유색인종에 가해지는’ 인종차별에 주목한다. 이슬람혐오 외에도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인종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도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혜우(2019)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하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경제적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구별짓기가 인종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록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인(한국인)의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나타나더라도 ‘북반구 대 남반구’로 대표되는 백인 중심의 글로벌 경제 위계가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의 경우, 이슬람문화권 국가가 다양하고 그 국가들의 경제적 지위 또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벌 계층 구조와 인종주의의 결합이라는 틀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인종주의는 인종, 종족적 지배가 규율, 법과 자원의 재분배 등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구조이면서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재창조되고 재확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Essed, 1991: 45). 인종주의가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지배구조를 드러내며 동시에 재생산한다는 주장은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가 주도적으로 이뤄진 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주장이다(Essed, 1991; Kandaswamy, 2012; Omi and Winant,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정확히 지배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 최상위에 백인이 있다면 이를 기점으로 어떠한 모양의 인종관계가 나타나는지, 각각의 집단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C. J. Kim(1999), N. Kim(2006), J. W. Kim(2022)은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아시아인을 둘러싼 인종 관계가 백인과 흑인과의 양자 관계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였다. Velayutham(2017)과 Goh(2008)는 서구 중심의 인종주의 연구를 넘어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라는 다인종 사회에서의 인종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대로 비(非)백인 간의 인종적 지배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특정 지역과 맥락에서 인종적 대립구조, 시민권에 대한 차별 및 배제가 나타나는 양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Goh, 2008; Carr and Haynes, 2015; Velayutham, 2017; Li, 2019). Carr and Haynes(2015)는 아일랜드에서의 이슬람혐오에 대해 연구하며, 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과거 식민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일랜드에서의 이슬람혐오는 영국에서의 양상과는 구분된다고 말한다. 물론 이슬람을 반(反)서구적(against the West)으로 상상하는 등 서구 전반에 퍼진 이슬람혐오의 특징이 아일랜드에서도 관찰되긴 하지만 이것이 아이

랜드 민족주의와 함께 작동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갖지 않은 아일랜드 주민을 배제하는 식의 이중적 매듭에 의해 인종주의적 위계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국가정체성에 대해 분석한 Velayutham(2017)은 싱가포르를 CMIO(Chinese-Malay-Indian-Other)의 다인종 구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로, 국가가 인종주의 표현을 검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계와 인도계 싱가포르인에 대한 일상적인 인종주의가 공공연히 존재함을 밝혔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글로벌한 인종적 위계질서에 기초한 ‘수직적’ 지배구조와 특정 맥락에서의 민족주의와 시민권의 정치에서 비롯되는 ‘수평적’ 구별짓기/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다음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무슬림 사이에 인종적 지배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고 경계짓기를 통한 타자화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겠다.

IV. 현수막, 팻말 등을 통해 본 혐오와 경계짓기

2021년, 원색적인 욕설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담은 현수막과 팻말이 사원 주변, 무슬림 학생들의 거주지 벽과 창문 등에 장기간 걸렸다. 이처럼 혐오와 차별의 정동은 대현 1동 사원 주변에서 시각적으로 재현되면서 해당 공간에 대한 상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기능을 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주변과 무슬림주민의 미성년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가는 길 대로변에는 무슬림주민을 탈레반 추종자로 비하하는 현수막이 수주간 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수막은 무슬림 당사자에게 모욕과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이슬람신자 역시 이슬람혐오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¹⁰ 다음은

¹⁰ 경북대학교 정문 근처의 신암초등학교는 경북대학교 외국인 교원 및 학생들의 자녀들로 인해 이주배경아동들이 많다. 해당 현수막에 대해 비무슬림 외국인 교원 및 그들의 가족 또한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표 1 현수막, 팸말에서 나타난 사원 건축 반대 주장 유형 분류¹¹

유형	특징	예시
유형 1	인종주의적 본질화에 기 반한 이슬람 혐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lims who kill people brutally and behead them get out of this area right now. Terrorists!! •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이슬람사원건축을 반대해야 합니다] 꾸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 중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들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꾸란 65:4)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심지어는 제3자가 왜 때리는지 이유를 물어도 안 된다.(꾸란 4:34) [후략] • 우리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걸고 막아야한다 • 자기들만의 집단 사회를 구축하는 이슬람 본거지 절대 반대한다. • Islam does not allow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of other religions. It is absolutely forbidden to build a mosque in Korea!! 타 종교 시설 건립 불허하는 이슬람!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 건립 절대 불가!
유형 2	공포와 불안 을 호소하는 '주거지'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슬람 사원 본거지 건립 결사 반대 • 북구청은 주민의 주거지를 이슬람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 주택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핵폭탄을 안고 살 수 없다. • 이슬람 무서워서 밤 마실도 못 다닌다 삶의 질이 확 떨어졌다. • 유럽의 사례처럼 무슬림 밀집지역이 되어 치안불안, 슬럼화되면 책임지냐!!
유형 3	국민 우선성 을 주장, 역 차별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종교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대현동 국민들 생존권이 먼저다. • 이슬람이 국민이나 대현동 주민이 국민이나 북구청은 양자 택일하라. • 이슬람 인권차별 혐오 지켜주려다 저들이 세력화 하면 우리국민은 난민된다. • 외국인 인권은 보호하면서 국민 인권은 무시하고 오히려 역차별합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하라.
유형 4	선주민의 피 해(감), 약자 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년간 주민이 겪은 고통을 아는가!! 한밤중의 소음, 하루 5회 기도. ·마당에서 만드는 음식냄새 ·한국학생이 주거지에서 떠남 ·이슬람 활동지가 되서 지속적인 피해 • 대구 시장은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제가 살아온 이곳 대현동에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대구지방법원 000 부장판사님! 힘없는 주민들 목소리 들어주세요! 친이슬람 세력에 속지 마세요!!

¹¹ 표 1에서는 총 93개의 현수막들을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만을 열거했다.

표 1 현수막, 팻말에서 나타난 사원 건축 반대 주장 유형 분류(계속)

유형	특징	예시
유형 5	공공기관, 이슬람사원 연대단체, 관련 개인들에 대한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건축허가한 북구청 무책임한 졸속행정 규탄한다! •이슬람사원 건축 피해로 피눈물 흘리는 시민을 무시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퇴하라!! •주민의 고충을 무시하고 교내 무슬림 유학생만 보호하는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각.성.하.라! •억울한 대현동주민 가슴에 못박고, 무슬림 편드는 가짜인권팔이 매국노! OOO 교수·OOO교수 몰/러/나/라! •국민의 인권 탄압을 일삼는 반인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이슬람사원건축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을 인종차별 한다는 [대구지역 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참여연대] OUT

현수막과 팻말 등에 나타난 문구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은 사원반대 주장의 문구들을 그 핵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각 유형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각 유형들이 어떻게 서로 중첩,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슬람혐오의 구성 방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장에서는 각각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시 문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슬람혐오의 정동과 인종주의의 위장술(racism in disguise)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 글로벌, 내셔널, 로컬의 정동이 뒤얽히고 충돌하는 양상, 즉 다중스케일적 역동을 드러내고자 한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에서 재현되는 다중스케일적 역동은 표 2와 같다. 이 글에서 글로벌 스케일¹²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 모두 다른 층위와 교차하면서 특정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첫째로 전 세계적인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이슬람혐오의 정동과 인종적 주류사회와 소수인종 사이의 위계적 갈등을 들 수 있다. 무슬림 유학생과 ‘선주민’인 대현동의 한국 주민과의 갈등 양상은 이슬람혐오라는 인종주의의 한 종류가 서구에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차용되어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¹² 여기서 ‘스케일’은 분석의 도구다. 즉, 글로벌 스케일이란 특정 현상이 보편적이라거나 특정 개념이나 규범이 통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석 층위가 초국가적이라는 의미다.

표 2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에서 재현되는 다중스케일적 역동

스케일	역동	특징
글로벌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슬람혐오	‘선주민’과 ‘이주민’ 혹은 인종적 주류와 소수 인종 집단 사이의 위계적 갈등. ‘이슬람’과 관련된 특정 담론의 수입 및 인종주의, 인종차별적 담론의 확산.
	인권 규범과 이의 수용	UN 인권선언과 인권법을 기초로 한 초국가적 인권 규범. 내셔널 스케일에서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한 주장과 충돌하는 양상.
내셔널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되는 이슬람혐오, 반다문화주의, 역차별	다문화 반대 운동, 역차별 주장과 함께 서구의 이슬람혐오가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 등 한국 사회의 사건과 맥락에 따라 재구성됨.
	개발 관련 갈등, ‘혐오 시설’ 건축 반대	단시간 대규모 개발이 만연한 한국적 맥락에서 도드라지는 현상.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일부 시설 관련해서는 더욱 극심한 갈등이 나타남.
로컬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지역 특수적 맥락	지역의 지리적·문화적·인구적 특성이 갈등의 시작과 전개 방식, 결과 도출에 투영됨.

다(Yi, 2022). 두 번째는 인권선언과 인권법을 기초로 한 초국가적 인권 규범에 대한 수용으로서 이는 내셔널 스케일에서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한 다문화 반대, 역차별 주장 등과 대립한다.

반면에 내셔널 스케일은 한국에 특화된 정동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첫 번째는 글로벌한 이슬람혐오, 인종주의가 내셔널 환경에서 재구성되고 재현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예멘제주난민사태’ 이후로 난민대책국민행동이나 국민주권운동본부 등의 반다문화, 반난민 극우 조직들이 세력화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분석되듯, 이러한 내셔널 스케일의 조직들은 ‘국민 우선성’의 논리를 가져와 글로벌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이슬람혐오를 재조직한다.¹³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건축 및 개발과 관련한 역동인데, 넓게는 지역 개발 관련 갈등, 좁게는 ‘혐오시설’ 건축 반대로 압축되며 본질적으로는 인종주의와 별 연관성이 없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거시설이나 상업 시설 등을 건축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¹³ 덧붙이자면 ‘글로벌 스케일’의 이슬람혐오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Najib and Hopkins(2020)가 말했듯 이슬람혐오는 글로벌, 국가, 도시, 동네, 몸, 감정 등 다중스케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공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개발 관련 갈등은 한국의 많은 동네에 걸쳐 있는 현수막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또한 ‘혐오시설’ 건축 반대는 주거지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기피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소위 ‘넘비’ 행위를 포함하는데,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의 건립 과정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김이인정, 2018). 이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과 화자의 위치성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데, 대현동에서 이슬람사원이라는 종교시설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로컬 스케일은 II장 2절에서 서술된 대현동의 지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가리킨다. 현재 대현동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거주 주민 구성의 변화, 근 미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 스케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스케일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에서 나타나는 이슬람혐오는 유럽이나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이슬람혐오와는 그 모습이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가 대구 대현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슬람혐오나 인종주의적 실천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인종주의적 기저에서 배태되고 있는 담론과 행위들이 일상 속에 익숙한 관행 속에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제기되는 과정을 짚어 내는 일이다.

1. 인종주의적 본질화에 기반한 이슬람혐오 표현

대부분의 현수막과 팻말의 문구들이 한국어로 작성되긴 했지만, 무슬림학생 거주지 창문이나 벽에 영어로 된 문구들이 걸렸다는 사실은 반대주민들이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무슬림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1의 유형 1 중 첫 번째 문구가 대표적이다. “Muslims who kill people brutally and behead them get out of this area right now. Terrorists!!”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 이슬람공포증의 표상인 “무슬림 = 테러리스트”라는 공식은, 국내에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없었고 해외에서도 도리어 무슬림을 겨냥하는 테러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폭력성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본질로 만들고, “참수”, “성폭력” 등의 이미지를 통해 무슬림 일반을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표상시켜 낸다.

유형 1 중 두 번째 문구는 상대적으로 긴 현수막 글의 일부로,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꾸란의 교리에서 찾으려 하며, 교리를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폭력성과 더불어 강조되는 점은 전근대적이며 성차별적인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특성이다. 이러한 젠더화된 담론으로서의 이슬람 공포증은 앞서의 안보위협으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규정과 함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 이슬람혐오의 핵심적 특징으로 주류화되었다(육주원, 2019). 무슬림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상상은 테러리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성적 포식자(sexual predator)’로서도 작동한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 무슬림들이었다는 점이 불안과 공포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근거처럼 제시되기도 했지만, 실제 대현동의 무슬림 주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무슬림 유학생 가족인 경우이기에 한국 여성에 대한 성적 포식자로서의 무슬림 남성이라는 서사가 그럴듯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젠더화된 담론이 재인용됨(recitation)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본질화는 단지 무슬림 남성뿐 아니라 무슬림 여성들에게도 적용된다. “검은천 뒤집어 쓰고 활보하는 무슬림 때문에 숨이 막힌다” 등의 표어에서 드러나듯 여성 무슬림은 ‘여성 억압의 상징인 히잡’을 쓰고 다니는 전근대적이고 답답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성’, ‘전근대성’은 개개인의 특성이거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비롯되어 개인에게 체화된 일종의 인종적 본질(embodied racial essence)로 여겨진다. 이 같은 재현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슬람혐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대현동 주민들에게 배포된 인쇄물에서 이슬람혐오 선동 서적의 내용이 직접 인용되는 등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에서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내용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자의 속성은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는데, 유형 1의 3~5번째 문구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문제가 있더라도 한국 문화와

어느 정도 동화가 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슬람은 “동화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집단 사회”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타자, 더 위험한 타자이며 원천 차단만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타 종교 시설 건립 불허하는 이슬람!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 건립 절대 불가!”¹⁴라는 문구는 자유주의적 ‘관용’이 혐오로 전치되는 흥미로운 과정을 잘 드러낸다. McGhee(2005)는 영국에서의 다양한 혐오와 시민권을 둘러싼 정치를 분석하면서 차이와 관용을 둘러싼 언어가 타자에 대한 관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 of intolerance)”으로 변화해 가는 점을 짚는다. 그간 한국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이 그 실천에 있어서는 지극히 동화주의적 면모를 띠었을지라도, 담론적 수준에서는 차이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위 주민들의 문구는 ‘차이를 관용하지 않는 무슬림’에 대한 불관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슬람은 현대 다문화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종교로 표상되며, 무슬림은 여타의 ‘불쌍한 약자’들과는 달리 혐오하고 배격해야 할 대상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는 이슬람의 ‘불관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적 조처’로서 이슬람혐오가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이슬람의 종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불관용의 이미지는 서구 중심적 언론보도와 영화 등 각종 매체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재현을 통해 굳어졌고 따라서 ‘예상되는 불관용에 대한 불관용’이라 할 수 있다. ‘성적 포식자’로서 무슬림 남성의 표상을 정당화하는 데 켈른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인용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예비적 조처’로서의 이슬람혐오는 서구 세계의 입장을 취해야만 가능하다. 즉 한국 사회에서의 이슬람혐오는 자기 경험에서의 참조점은 비워진 채로 유럽, 미국 등 서구세계와 동일시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타자화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Yi, 2022).

¹⁴ 해당 현수막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아닌 ‘국민주권행동’에서 게시함.

2.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주거지’ 논리

이른바 주거지역에 종교 시설 건립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인종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¹⁵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지역화된 인종주의에 대한 부정(denial of localized racism)’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원 건축지 바로 근처에 개신교 및 무속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주거지’ 논리 역시 앞서의 인종주의적 본질화 과정과 깊이 얽혀 있음을 표 1 유형 2의 예시 문구들을 통해 볼 수 있다.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이슬람 사원 본거지 건립 결사 반대”, “주택 한 복판에 이슬람 사원 핵폭탄을 안고 살 수 없다”, “이슬람 무서워서 밤마실도 못 다닌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은 공포와 불안으로 표현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슬림을 테러리스트와 등치시키고 참수와 성폭행 등으로 대변되는 폭력성을 이슬람의 본질로 만들면서, 무슬림은 공포와 불안을 수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본거지”, “핵폭탄”, “무서워서” 등의 표현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렇게 공포와 불안으로 표현된 정동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마음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무슬림 학생의 가족들을 세입자로 두거나 이웃으로 삼아 살아왔으며, 그간 무슬림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적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유학생들이 주민들의 반대와 혐오를 급작스럽다고 느끼는 지점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간 “참았다”¹⁶고 주장하나 주로 참았다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라마단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모여서 발생한 소음이나 음식으로 인한 냄새에 대한 것이었지 일상적 공포와 불안에 대한 것은 아니다. 사원건축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오히려 주거 환경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 시위나 사원 건축 부지 앞을 지키면서 지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괴

15 “주택가 속 이슬람사원 공존의 길 없네 대구 대현동 사원 공사 중단 6개월 ... 종교탄압 논란으로 확산.”(영남일보 21/08/28).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828010003640>(검색일: 2022. 1. 30.).

16 “이슬람 사원 건축 재개 법원 결정에도, 주민 반발 여전.”(뉴스민 21/07/27). <https://www.newsmmin.co.kr/news/60455/>(검색일: 2022.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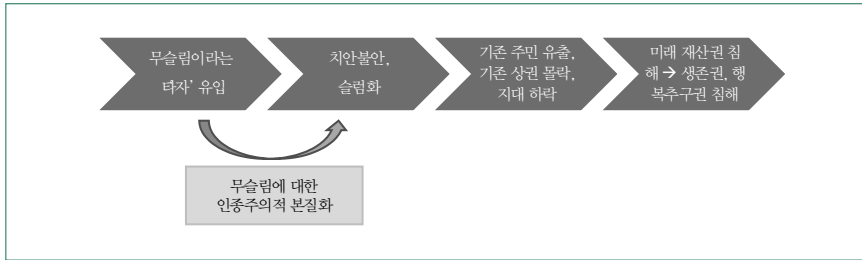


그림 1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의 (비논리적) 논리 연쇄

롭힘¹⁷이다. 즉 공포와 불안이라는 수사(rhetoric)는 이슬람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에 근거하되 실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피해감과 약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2의 마지막 사례인 “유럽의 사례처럼 무슬림 밀집지역이 되어 치안불안, 슬럼화되면 책임지냐!”는 문구는 앞서 분석한 인종주의적 본질화에 기초한 이슬람혐오의 글로벌-내셔널 다중스케일의 경합이 대현동 지역에서 발현된 모습을 잘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흥미롭다. 첫째는 유럽의 사례에 자기준거점을 두고,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가 위기에 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점이다. 백인 기독교인으로 상상되는 유럽 선주민들의 사회가 ‘평화롭고 정상적인’ 사회이며, 대구 대현동 지역사회도 역시도 이러한 유럽 사회와 동일시되는 가운데, ‘침입자’로서의 무슬림들이 이 평화와 정상성을 깨뜨리는 존재로서 부각된다. 두 번째는 기존 반다문화·반난민 정치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경제와 치안 담론의 두 축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육주원, 2019).

그림 1은 무슬림이라는 ‘타자’의 유입이 치안 불안과 슬럼화를 낳고, 이는 기존 주민 유출, 상권 몰락뿐 아니라 미래의 지대 하락이라는 주요한 미래 가치의 손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원 건축 반대 주장의 논리 연쇄이다. 두 번째 요소인 치안 불안과 슬럼화 이후의 부분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꽤 현실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실제로 주민들은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

17 ““테러리스트는 떠나라!”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건립 두고 무슬림 유학생-주민 갈등.”(한국일보 21/09/17). <https://www.youtube.com/watch?v=gqBguV3W7xQ>(검색일: 2022. 1. 30.).

등을 주거지역 내 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협소화하여,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단지 주거 밀집 지역이라서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현동이 지난 40여 년 간 대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로컬 스케일적 특징으로 볼 때 지역 개발이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지대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감 역시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이전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듯이, 치안 불안과 슬럼화라는 논리가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본질화와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상기한다면, ‘주거지’ 논리 역시 기저에 작동하는 인종주의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3. 국민 우선성을 주장, 역차별 규탄

주민들의 피해감, 억울함을 증폭시키는 논리는 ‘국민 우선성’이다. 유형 3에서 “이슬람 종교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대현동 국민들 생존권이 먼저다”, “이슬람이 국민이냐 대현동 주민이 국민이냐” 등의 문구에서 보이듯, 외국인의 종교적 권리와 국민들의 생존권은 충돌하는 것으로 표상되며 이러한 갈등의 국면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인권이라는 것마저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정된 자원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고되며, 이 경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인 것이다.

이러한 문법은 “국민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통해 2018년 예멘 난민 반대에서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인권차별 혐오 지켜주려다 저들이 세력화하면 우리 국민은 난민된다”는 팻말 문구 역시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을 상기시킨다. 여기서도 무슬림은 인권을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세력화”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이들의 인권을 우선하다가는 위치가 뒤바뀌어 국민이 “난민”처럼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 우선성’ 주장은, UN 인권선언 등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세계적 인권 규범과 담론을 기각하는, 내셔널 스케일의 논리가 되었다. ‘난민의 권리 없음’이나 ‘국민성’을 기준으로 한 위계화된 권리의 배분의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적 상식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국민 우선성 주장은 최근 한국 사회

여러 영역에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감추는 주제어인 ‘역차별’ 담론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외국인 인권은 보호하면서 국민 인권은 무시하고 오히려 역차별합니다.”라는 문구에서도 보이듯, 외국인 인권과 국민 인권은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되고, 무슬림의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로 규정된다. 이처럼 다문화, 이주 의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역차별 주장에서 글로벌 스케일(보편적 인권으로 표상되는 인권 규범)과 내셔널 스케일(국민 우선성 주장의 사회운동화)의 충돌을 볼 수 있다.

4. 선주민의 피해(감), 약자성 부각

그림 1의 논리 구조를 가진 사원건축반대 주장은 표 1 유형 4의 문구들에처럼 선주민의 피해(감)와 약자성을 부각시키는 표현 방식을 채택한다. “지난 7년간 주민이 겪은 고충을 아는가!! 한밤중의 소음, 하루 5회 기도, 마당에서 만드는 음식냄새, 한국학생이 주거지에서 떠남, 이슬람 활동지가 되서 지속적인 피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소음과 음식냄새를 “인내”해 왔다고 주장한다. ‘소음’, ‘냄새’에 대한 기준과 적용이 인종주의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시민권 행사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은(Sayad, 1999; Velayutham, 2017; Nowicka, 2018) 여기서 따로 논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생활상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주민들이 완강히 거절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그림 2 참조), 소음과 냄새가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충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일상적 피해(감)’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제가 살아온 이곳 대현동에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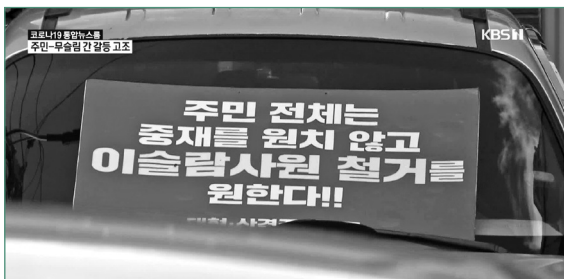


그림 2 중재·협의를 거부하고 철거를 요구하는 사원건축반대 팻말

“힘없는 주민들 목소리 들어주세요! 친이슬람 세력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구에서도 나타나듯, 반대 주장들은 공격적인 어조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약자의 지위에 놓고 피해감을 호소하는 어조를 띠기도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땅히 우선시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익을 뒤로 하고 외국인의 권리를 챙겨 주는 한국 사회에서 본인들이 역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이 같은 어조의 변화는 인종차별적 현수막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수막 철거 의견을 제시하자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적이고 일상적인 피해감이 반대주장 전면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의 논리 연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대주장의 핵심에는 ‘미래의 재산권’에 대한 우려와 욕망이 놓여 있다. “한국학생이 주거지에서 떠남”,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슬람 사원” 등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사원 건축은 단지 소음과 냄새 등 생활상의 문제를 조율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주민들의 미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재산권의 침해는, 무슬림들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날 침해’로 상정된다. 재산권 특히 부동산 관련된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러한 ‘미래 재산권의 예정된 침해’는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모두를 저당잡는 거대한 권리 침해 요인으로 발화된다. 현재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은 이슬람사원 측임에도 재산권을 기초로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으로 현현되는 것이다.

5. 공공기관, 이슬람사원 연대단체, 관련 개인들에 대한 규탄

국민 우선성, 역차별 주장(유형 3)과 주민들의 피해자성 호소(유형 4)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서 선주민의 편에 서지 않은 공공기관과 이슬람사원 연대단체에 대한 규탄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애초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의 건축을 허가했고, 북구청, 대구시 등이 갈등이 시작된 후로도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눈물 흘리는 시민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을 규탄했다. 또한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이슬람사원 연대단체와 관련

개인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의 수위 높은 공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억울한 대현동 주민 가슴에 못 박고, 무슬림 편드는 가짜 인권팔이 매국노” 등의 문구에서 보이듯이 본인들의 약자성 피해감을 호소함과 동시에 이슬람사원 연대단체나 개인들의 ‘국민성’을 의심하며 비판하고 있다.

근 10여 년 간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조롱이 유희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권팔이”라는 표현은 인권 담론이 역차별 담론으로 포섭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와 기관들이 적대시되는 경향성을 잘 드러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사원(진정인) 측이 제기한 현수막 등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인정하자 인권위를 “반인권적 적폐집단”으로 규정하거나, “인종차별 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대구지역 인권단체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등을 규탄하는 문구에서도 국민 우선성에 기반한 인권 개념의 왜곡된 전유가 드러난다.

V. 맺으며

본 논문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의 주체로 국가나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일반 주민 집단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인종주의가 특정 지역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고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을 글로벌, 내셔널, 로컬이 뒤얽히고 충돌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여타 모순들과 부딪히고 얽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어법과 관행들을 통해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위장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를 둘러싼 복잡한 정동과 인종주의의 위장술은 주민 탄원서, 주민 집회와 사원 주변의 현수막, 팻말 등을 통해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 문구들을 종합하여 “인종주의적 본질화에 기반한 이슬람 혐오 표현”,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주거지’ 논리”, “국민 우선성을 주장, 역차별 규탄”, “선주민의 피해(감), 약자성 부각”, “공공기관, 이슬람사원 연대단체, 관련 개인

들에 대한 규탄”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인종주의적 본질화에 기반한 이슬람 혐오 표현”과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주거지’ 논리”에서 살펴본 문구들은 이슬람에 대한 본질화된 상상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슬람혐오와 인종주의(글로벌 스케일)가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된 모습을, 두 번째 유형은 이것이 대현동이라는 로컬 스케일에서 뒤섞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문구들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 성적 포식자, 침입자로 묘사하고, 이슬람을 현대 다문화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불관용의 종교, 한국 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종교로 표상시킨다. 주거지역에 종교기반시설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슬람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합된다. 이렇듯 무슬림에 대한 인종화에 기초해서 무슬림은 치안불안과 슬럼화를 야기하는 존재로 고정사실화되고 이는 선주민의 유출, 상권의 몰락, 또한 지대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미래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인권 유린이 일어난다는 사원건축 반대의 논리 연쇄가 만들어진다.

“국민 우선성을 주장, 역차별 규탄”, “선주민의 피해(감), 약자성 부각”, “공공기관, 이슬람사원 연대단체, 관련 개인들에 대한 규탄”으로 분류된 문구들은 대현동 주민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위치시킨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의 권리는 어떠한 비국민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글로벌 인권 담론은 기각된다. 이렇듯 글로벌, 내셔널 스케일의 충돌 속에서 로컬적 맥락이 더해지면서, 고통 받는 대현동 주민에게는 동정이, 이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는 규탄이, “인권팔이”를 하는 이슬람사원 지원단체들에게는 공격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현수막과 팻말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즉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심지어는 그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이더라도) ‘역차별’로 상정되고, 이를 묵과하거나 지원하는 단체, 정부기관 및 개인은 반국민적인 행위자로 매도되었다.

이처럼 대현동에서의 이슬람혐오는 글로벌한 인종적 지배구조에서 파생되는 이슬람에 대한 상상과 한국 사회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한 권리담론과 타자 만들기라는 두 가지 기제가 결합하여 구성되고 있다. 즉 위계적일 뿐 아니라 배타적인 양상으로 인종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슬람혐오는 서구

세계를 이슬람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한국 사회를 서구 세계와 같은 잠재적 피해자로 보면서 이슬람을 공포와 야만의 대상으로 위계화하는 인종화 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무슬림을 ‘비국민’, 즉 ‘한국 사회에서 권리의 우선권이 없는 자’로 타자화하는 인식적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주의적 기저에도 불구하고, 다중스케일적 경합으로 인해 사원건축반대는 종종 인종주의와는 무관한 다른 사회적 갈등, 즉 ‘개발·건축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피해자로서의 주민’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주의의 위장술’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나 이슬람혐오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투고일: 2022년 2월 19일 | 심사일: 2022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1일

참고문헌

- 구기연. 2018.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창작과비평』 46(3), 401-412.
- 김이인정. 2018.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원인 분석: 구조적 갈등 이론(A nested theory of conflict)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4-143.
- 양혜우. 2019. “위계적 인종주의를 태동시킨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와 그 대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711-721.
- 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홍순·정진현·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이희수·강희복.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육주원. 2016.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한국사회학』 50(4), 109-134.
- _____. 2019. “반다문화에서 반난민까지: 타자 만들기의 인종·젠더 정치.”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봄 학술대회 발표. 서울. 5월 25일.
- 이병렬·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90, 320-362.
- 전정윤. 2018. “18억 명 믿는 보편종교 이슬람, 여성 비하 교리 없다.” 한겨레21(2018년 7월 9일).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630.html(검색일: 2022. 3. 19.).

- 정혜실. 2010. “한국의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보노짓 후세인’ 사건과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31, 95-109.
- Balibar, É. 1991. “Is There a ‘Neo-Racism?’” In É. Balibar and I. Wallerstein, eds.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17-28. London: Verso.
- Barker, M. 1981. *The New Racism: Conservatives and the Ideology of the Tribe*. London: Junction Books.
- Billig, M. 2001. “Humour and Hatred: The Racist Jokes of the Ku Klux Klan.” *Discourse & Society* 12(3), 267-289.
- Bonilla-Silva, E. 2003. *Racism without Racists*. Lanham: Rowman & Littlefield.
- Carr, J. and A. Haynes. 2015. “A Clash of Racializations: The Policing of ‘Race’ and of Anti-Muslim Racism in Ireland.” *Critical Sociology* 41(1), 21-40.
- Chung, E. A. 2020. “Creating Hierarchies of Noncitizens: Race, Gender, and Visa Categor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2), 2497-2514.
- Essed, P. 1991. *Understanding Everyday Racism: An Interdisciplinary Theo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Goh, D. P. S. 2008. “From Colonial Pluralism to Postcolonial Multiculturalism: Race, State Formation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Malaysia and Singapore.” *Sociology Compass* 2(1), 232-252.
- Hall, S. 1987. “Minimal Selves.” In L. Appignanesi and H. K. Bhabha, eds. *Identity: The Real Me*, 44-46. Lond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 Huntington, S.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 Kandaswamy, P. 2012. “Gendering Racial Formation.” In D. HoSang, O. LaBennett, and L. Pulido, eds. *Racial Form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23-4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C. J. 1999.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Politics & Society* 27(1), 105-138.
- Kim, J. W. 2022. “The Possessive Investment in Honorary Whiteness?: How Asian and Asian Americans Reify a Transnational Racial Order through Language.” *Ethnic and Racial Studies* 45(1), 173-191.
- Kim, N. Y. 2006. “‘Patriarchy is So Third World’: Korean Immigrant Women and ‘Migrating’ White Western Masculinity.” *Social Problems* 53(4), 519-536.

- Li, Y.-T. 2019. ““It’s Not Discrimination””: Chinese Migrant Workers’ Perceptions of and Reactions to Racial Microaggressions in Australia.” *Sociological Perspectives* 62(4), 554-571.
- McGhee, D. 2005. *Intolerant Britain? Hate, Citizenship and Differenc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Najib, K. and C. T. Hopkins. 2020. “Geographies of Islamophobia.”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21(4), 449-457.
- Nowicka, M. 2018. “I Don’t Mean to Sound Racist But ….” Transforming Racism in Transnational Europe.” *Ethnic and Racial Studies* 41(5), 824-841.
- Omi, M. and H. Winant. 201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3rd ed.). New York: Routledge.
- Poynting, S. and Mason, V. 2006. ““Tolerance, Freedom, Justice and Peace”?: Britain, Australia and Anti-Muslim Racism since 11 September 2001.”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27(4), 365-391.
- Runnymede Trust. 1997.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Runnymede Trust.
- Said, E. 1979. *Orientalism: Western Concepts of the Orient*. New York and Toronto: Vintage Books.
- Sayad, A. 1999. “A Displaced Family.” In Pierre Bourdieu, ed. *The Weight of the World*, 23-36. Cambridge: Polity.
- Velayutham, S. 2017. “Races without Racism?: Everyday Race Relations in Singapore.” *Identities* 24(4), 455-473.
- Werbner, P. 2013. “Folk Devils and Racist Imaginaries in a Global Prism: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Ethnic and Racial Studies* 36(3), 450-467.
- Yi, S. 2022. “Imaginations of Europe and the Multi-Scalar Construction of Islamophobia in South Korea.”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Conference 발표. 2022. 3. 26. Honolulu, Hawaii.
- Yuk, J. 2016. “The (Mis)Understanding of Race and Racism i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6), 125-145.

Abstract

Racism in Disguise: Islamophobia and Daegu Daruleeman Islamic Mosque

Joowon Yu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hoon Y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 February 16, 2021, the Bukgu District Office in Daegu City suspended the construction license of the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re (Daruleeman Mosque) based on the petitions submitted by the neighbouring residents. Subsequently, the residents set up a task force to interrupt the construction process, by guarding the construction site, distributing anti-Islamic leaflets, and hanging banners and placards throughout the neighbourhood and the c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emergence of ‘regular people’ who engage in racism instead of a state body or specific individuals to analyze 93 pieces of writings extracted from the banners and placards. These banners and placards may appear as if residents are rightfully protesting a construction project in their neighbourhood, a common form of protest observed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not an act of racism. The paper uses the concept of ‘racism in disguise’ to show how a racially motivated conflict takes the appearance of other pre-existing social conflicts. Moreover, this paper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Islamophobia is inherently multi-scalar in investigating the Daruleeman Mosque conflicts, paying keen attention to dynamics at global, national and local scales. Through this case study, the paper shows that Islamophobia in South Korea is not just ‘imported’ from the West but re-invented through an ethnic Korean-based, exclusive notion of citizenship-making and

materialized according to the local context.

Keywords | Daegu Daruleeman Islamic Mosque, Islamophobia, racism in disguise, social conflict, reverse discrimination

